

기본간호학 연구동향 - 기본간호학회지 논문분석을 기반으로 -

정인숙¹⁾ · 강규숙²⁾ · 김경희³⁾ · 김금순⁴⁾ · 김원옥⁵⁾
변영순⁶⁾ · 송경애⁷⁾ · 손영희⁸⁾ · 양선희⁹⁾ · 조현숙¹⁰⁾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연구는 간호에서 흥미있는 개념,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과정(Hinshaw, 1989)이며, 간호지식을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즉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식의 기초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개발함으로써 간호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간호연구를 지지하기 위한 조직의 구축과 연구지도에 필요한 인력의 증가, 그리고 연구의 활성화와 결과의 배포를 위한 학회지의 발간 등이 요구된다. 간호학에서는 조직적 지원을 위해 1970년 4월에 간호학문의 발전과 연구, 타 학문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대한간호학회를 설립하였으며, 간호행정·기본·성인·아동·모성·정신·지역사회 등 7개의 분야별 학회를 두고 있다. 전문인

력확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로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1998년 2월 현재 약 2,980여명의 석사와 336명의 박사를 배출하였고 1973년 이후로 12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학회지는 1970년 대한간호학회의 출범과 함께 발간되기 시작한 전문간호학술지로 2000년 현재 30권까지 발간되었고, 2001년부터는 명실공히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년 6편의 발간을 시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7개 산하학회의 하나인 기본간호학회는 기본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학구적인 연구에 관한 활동과 타 분야별 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82년에 결성되었다. 2000년 8월 현재 약 200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학술세미나, 전문간호연수과정, 교육매체 개발, 해외연수, 그리고 연구비 지원 등 회원의 연구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 처음으로 학회 회원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학회지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중전의

*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회 정책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1)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3)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4)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5)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6)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7)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8) 국립의료원 간호과
9) 적십자간호대학 간호과
10) 가천길대학 간호과

년 2회에서 년 3회로 증간하고 앞으로는 년 4회로 증간예정에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본간호학과 관련된 연구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본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주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연구유형이나 연구설계는 주로 어떤 것이 이용되고 있는지, 연구방법은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것들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전혀 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기본간호학회 회원의 간호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학회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회지 창간호에서부터 2000년 7권 2호에 이르기까지 출간된 연구논문들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는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어, 관심분야, 연구유형,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의 특성,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 도구의 특성 및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여부, 윤리적 사항에 대한 고려, 간호중재방법, 통계적 분석 기법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간호연구의 발전과정

간호연구는 간호지식을 발굴하고 정련하고 확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간호연구는 나이팅게일이 1850년대 중반 크림리아전쟁 때 탁월한 지식과 통계기법을 이용하였고, 간호업무는 면밀한 관찰과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훈련된 탐구에 의존해야 한다는 착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최 등, 2000).

이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전문지에 결핵, 뇌막염, 성홍

열 등의 전염병과 관련된 건강문제가 실리게 되었고, 간호사도 개인위생, 공중위생, 내과적 및 외과적 무균법, 모성 및 유아사망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20년대 초에 비로소 사례연구의 형태로 특수환자나 치료절차에 관한 간호계획이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의학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흔히 질병의 원인 및 증상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치료법과 간호법이 논의되고 있다.

1920년에서 1930년대는 미국 간호연구의 초창기로 기본적인면서도 방대한 문제가 주로 연구되었는데 간호교육 시설확충문제, 간호사 증원문제, 간호업무분석 등 간호교육과 간호업무상의 문제였다. 또한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Goldmark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으며, 간호교육자, 행정가 및 지역사회 간호사를 위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간호연구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에서 1940년대이며 간호대학의 학제연구위원회와 같은 여러 연구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다양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1940년에서 1950년은 연구의 성숙기로 간호업무와 간호교육의 비용에 관한 기초조사, 보건간호사의 전국 조직에서 16개 지역에 대한 가정방문의 필요성과 그 지원에 대한 조사보고서, Brown 보고서에 의하면 실무교육, 간호업무, 역할과 태도, 환자-간호사 관계, 병원환경 및 간호사의 보수체계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950년에서 1960년은 간호연구의 발전기로 대학원과정 시작되며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나 간호인력의 각 계층별 업무향상을 위한 연구가 병원단위로 많이 시행되었다.

1952년 처음으로 전문 간호학술지인 'Nursing Research'가 창간되었고, 1960년대 이후는 간호연구의 전성기로 연구방법에 익숙한 대학원 졸업생이 교육기관으로 흡수되면서 연구의 윤리적 측면과 임상에서의 연구방법 활용이 강조되었고, 개념틀, 개념적 모델, 간호과정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논문에 활용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연구논문이 폭주하면서 기존의 "Nursing Research" 하나의 잡지로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Advanced in Nursing Science",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The Western Journal of Research in Nursing' 등이 창간되게 되었다. 1980년대 와서 질적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임상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학이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문은 아니었고, 20C 중반이후에야 조금씩 연구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간호연구의 동향

ENR(Established nurse researcher)에서 35명의 저명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가치있는 연구주제의 발견과 활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이디어의 발견에 대해 임상적인 것에서 87%, 문헌에서 57%, 동료에게서 46%, 그리고 학생에게서 28%, 자금조달이 우선순위 9%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하고 가치있는 연구내용을 결정하는데는 실제 적용가능성, 방법론적인 건전함, 지식축적의 잠재성, 이론의 유용성, 적절성, 개인적인 관심, 실행성 및 재정적 지원 등이 차지하였다.

강과 이(1980)의 1970년에서 1979년의 10년간 대한간호와 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318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임상분야의 연구활동이 부진하며 이론 연구(31.4%)보다는 실제연구(68.6%)가 더 많았고, 연구영역은 간호사자질(32.1%), 간호행위(46.2%), 간호대상자(21.7%)의 순위였으며, 조사연구가 76.9%로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분석방법으로는 단순히 백분율로 처리한 것도 57.0%였고, 추론통계 방법으로 chi-square 검정(16.7%), t-검정(12.1%), F-검정(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 등(1983)이 13년간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199편과 5년간 "Nursing Research"에 게재된 259편 등 총 458편을 분석한 결과에서 두 학회지 모두 연구자는 교수가 많았고, 전공영역은 성인간호였으며, 문제진술, 가설설정, 고급통계분석 및 제언은 "Nursing Research" 쪽이 더 잘 표현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대한간호학회는 조사연구가 전체의 55.8%로 가장 많았던 반면, "Nursing Research"

에서는 조사연구가 32.9%, 실험 및 유사실험연구가 26.0%로 나타나 대한간호학회지에 조사연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1984)는 1970년부터 1983년 9월까지 대한간호 및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경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임상간호분야가 55.4%, 지역사회 보건의 22.3%이었고, 서술적 연구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은 환자 및 가족이 31.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간호사와 간호학생(26.1%)이었다.

박(1989)은 1983-1988년의 간호연구논문의 주요 개념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간호연구, 역할, 신생아 간호, 지각, 도구개발, 대응의 순위로 나타났다.

고, 김, 김, 이, 그리고 이(1992)는 1960년 이후부터 1991년 8월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2354편의 제목에 나타난 주요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539종이 있었고, 이 중 1편당 약 2개의 주요어가 사용되었음을 보였다. 주로 사용된 개념은 간호사(5%), 불안(3%), 지식·태도·실천(2%), 스트레스·스트레스원(2%), 정신장애, 수술, 노인, 역할 등이 각각 1%로 나타났다.

김, 이, 이, 그리고 이(1994)는 1960년부터 1991년 8월까지 발표한 간호학 학위논문중 실험논문 150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유사실험연구가 많았고, 대부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의표출로 표본수는 21~30명정도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2개월이 소요되었고 자료분석시는 모수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김과 이(1995)이 1960년 이후부터 1991년 8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논문 1779편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 연구유형은 요인추구형(58.0%), 요인관련형(29.1%)으로 나타났다. 비실험연구가 약 90%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요 연구대상자는 환자(30.3%), 간호사(16.6%), 학생(9.9%) 순으로 나타났다.

서 등(1996)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국내외 석·박사 학위 논문 및 비학위 논문중 간호중재를 적용한 실험연구만을 대상으로 간호중재의 종류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인지적중재, 운동중재, 사회

적 중재, 그리고 감각적 중재순으로 행해짐을 보였다. 특히 인지적 중재는 주로 정보제공과 교육이었으며 운동중재는 이완요법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중재도구는 주로 강의방법을 적용하였고,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재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75.0%를 차지하였다. 간호중재별 종속변수는 인지적 변수가 57.9%로 가장 많고 건강행위 변수, 상태불안 변수, 지식 변수 등이 주로 측정되는 종속변수였다.

최 등(2000)이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 총 959편의 대한간호학회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에 오면서 학위논문보다는 일반논문이, 그리고 공동논문과 연구비 수혜논문이 점차 증가함을 보였다. 연구설계면에서는 여전히 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빈도(83.2%)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수실험연구를 포함한 실험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질적연구는 1990년대 급증하여 1990년대 논문의 18.7%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감소하는 반면 환자, 환자가족, 지역사회 건강인 등으로 간호연구대상자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간호의 주요개념 중 간호, 인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았지만 환경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추출방법을 보면 여전히 대다수가 임의추출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에 의한 것이 약 42.1%를 차지하여 1980년까지 생리적 측정법, 사회심리적 측정법, 자가보고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던 것과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자료수집시 윤리적인 고려는 여전히 부진하여 1990년대에도 전체 논문의 78.6%는 윤리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주요개념을 보면 1970년대는 임상실습과 임상간호교육, 간호실무, 간호업무, 근무성적, 지도성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급성전염병 등이었으며, 1980년대는 감염, 통증,

스트레스-적응, 불안, 심폐기능, 지식태도, 이행 등이었고, 1990년대는 간호분야별로 분류하였는데 기본·성인분야가 116편(19.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모성분야(83편, 13.9%), 교육분야(57편, 9.5%), 간호관리분야(52편, 8.7%), 그리고 아동분야(35편, 5.9%) 등의 순이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주요어, 연구의 유형, 연구설계, 연구방법, 분석방법 등을 객관적인 틀을 이용하여 조사하여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1994년 창간호부터 2000년 12월 7권 3호까지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171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3. 조사도구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수집은 연구자들이 작성한 기본간호학회지 분석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분석틀은 논문의 유형, 연구비 수혜 여부, 연구자 수, 연구자 구성, 주요어, 연구유형, 연구목적, 연구설계유형, 표본추출방법 및 크기, 연구대상자의 특성, 윤리적 고려 여부, 실험연구에서 중재방법의 유형, 중재자의 유형, 중재횟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유형,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도구 및 척도, 자료수집기간, 통계적 분석방법, 그리고 제언의 여부 등을 포함하여

<Table 1> Research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Year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Total		
Volume (number)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6(3)	7(1)		7(2)	7(3)
Number of articles	7	7	5	10	9	11	11	11	10	14	11	12	19	10	13	11	171

총 26개의 세부분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 처리한 후 엑셀에 입력하고, windows SAS 6.12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도별 논문종류

논문의 종류를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으로 구분할 때 약 94%가 일반논문이었으며 연도의 변화에 따라 그 비율은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 전체 논문중 연구비 수혜논문은 약 27%(46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7.4%(31편)는 학내논문, 기본간호학회 지원 연구는 26.1%(12편)이었으며, 외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뤄진 연구는 3편(1.8%)에 불과하였다(Table 2).

<Table 2> Classification of research

Classification of research	Total (N=171)
Dissertation	10(5.8%)
Theses	161(94.2%)
Financially supported by colleges or universities	46(26.9%)
academic societies	31(18.1%)
other funding agencies	12(7.0%)
	3(1.8%)

2. 연구자수 및 구성

<Table 3> Composition of researchers

Researcher	Total (N=171)	Researcher	Total (N=171)
Principal investigator	Professors in nursing school	Professors in nursing school	112(64.4%)
	staff nurse	staff nurse	39(22.4%)
	Professors in non-nursing schools	Professors in non-nursing schools	3(1.7%)
	graduated students	graduated students	17(9.8%)
	10(5.8%)	others	3(1.7%)

한 연구논문 당 관여된 연구자수는 평균 2.2명이며 연도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었다. 최대 참여연구자는 9명이었으며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단독연구는 총 59편으로 전체 연구의 34.5%를 차지하였고, 최근으로 오면서 공동연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연구자의 소속을 보면 제 1저자의 경우 80% 이상이 간호교육자이었으며, 임상실무자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동 연구자의 경우도 간호교육자가 가장 많은 비율(64.4%)을 차지하고 있지만 책임연구자에 비해 임상실무자 및 대학원생의 참여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타과와의 공동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편(3편, 1.7%)이며 현재까지 공동연구가 진행된 타분야는 임상병리과, 응급의학과 그리고 환경공학과이었다(Table 3).

3. 주요어수와 종류

171편의 논문에 제시된 주요어 총수는 331개로 논문 1편 당 평균 약 2.6개였다(Table 4).

<Table 4> Number of key words

Number of key words	Total(N=171)
1	30(17.5)
2	66(38.6)
3	45(26.3)
4	17(9.9)
5	8(4.7)
6	4(2.3)
7	1(0.6)
mean±SD*	2.55±1.2

* SD : standard deviation

<Tables 5> Key words

Rank	Key words	frequency	Rank	Key words	frequency	Rank	Key words	frequency
1	home care	10	6	daily activity	5	16	nursing	3
2	health promotion	8	6	elderly people	5	16	intravenous injection	3
3	self care	7	6	stroke	5	16	blood pressure	3
3	self-efficacy	7	13	chronic disease	4	16	nosocomial infection	3
5	hemodialysis	6	13	clinical practice	4	16	nursing need	3
6	depression	5	13	aerobic exercise	4	16	family support	3
6	self-esteem	5	16	tympanothermo meter	3	16	stress	3
6	health status	5	16	music therapy	3			
6	fundamental nursing	5	16	discomfort	3			

가장 빈번히 사용된 주요어는 가정간호(10건), 건강증진(8건), 자가간호(7건), 자기효능감(7건), 혈액투석(6건) 등으로 나타나 간호학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기본간호학의 차별화된 개념이나 용어라고는 보기 힘들었다. 기본간호학의 고유분야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본간호(5건), 고막체온(3건), 정맥주사(3건), 혈압(3건), 그리고 무균술과 관련되어 병원감염(3건) 등의 주요어가 언급되었지만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였다<Tables 5>.

4. 연구유형 및 이론수준

연구의 유형은 약 87%가 양적연구이며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질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시도되고 있는 연구방법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해 Q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2.9%)와 종설 및 문헌고찰(5.3%)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연구의 이론수준은 조사연구가 중심이 된 요인관련형이 약 40%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실험연구의 증가에 따라 상황관련형(19편, 11.1%)이나 상황생성형(38편, 22.2%)이 증가하는 반면 요인추구형(26.3%)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설계

연구설계유형을 보면 비실험연구가 전체의 70.8%

<Table 6> Research designs(1)

Research design	Total (N=171)
Quantitative studies	148(86.5%)
Qualitative studies	9(5.3%)
Q sort	5(2.9%)
Literature review	9(5.3%)

를 차지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조사연구의 두드러진 감소를 보였다. 조사연구는 전체 연구의 약 64%로써 여전히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방법임을 보여주었다. 다행히도 실험연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실험연구중에서는 유사실험연구설계인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14.1%)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에서의 연구환경을 고려할 때 순수실험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으며 본 학회지 분석결과 1편의 순수실험연구가 있었다(Table 7).

6. 표본추출방법

각 논문에서 사용한 표본 수는 평균 약 147명(중간값 86명)으로 비교적 대표본이었는데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로 구분하여 표본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조사연구는 평균 204명, 실험연구는 평균 6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본 수를 산정할 때 기대하는 효과의 크기 또는 통계적 검정

<Table 7> Research design(2)

		N(%)		N(%)	
Non-experimental studies	surveys	117(68.4)	Pre-experimental studies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6(4.0)
	case studies	1(0.7)		one shot design	1(0.7)
	historical studies	0		interrupted time series design	1(0.7)
	methodology	3(2.0)		one group crossover design	1(0.7)
	Subtotal	121(70.8)		Subtotal	9(5.3)
Quasi-experimental studie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21(14.1)	Experimental studies		1(0.7)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13(8.7)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4(2.7)			
	simulat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0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non-synchronized design	2(1.3)		Subtotal	1(0.7)
	Subtotal	40(23.4)		Total	171(100.0)

력 등을 고려하여 표본수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12.8%) 대부분의 경우 편의추출(96.5%)로 임의의 표본 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able 8> Sampling method

Sampling method	빈도(%)
probability sampling	
simple random sampling	0
stratified sampling	2(1.3)
cluster sampling	0
systematic sampling	1(0.7)
nonprobability sampling	
convenience sampling	165(96.5)
quota sampling	2(1.3)
계	171(100.0)

7.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환자로 전체 대상의 44.8%를 차지하였으며 환자의 특성을 보면 수술환자(9건), 투석환자(8건), 뇌졸중환자(6건), 관절염환자와 중환자실 환자가 각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근골격계환자, 암환자, 루프스환자, 혈우병환자, 요통환자 등 다양하였다. 이외 일

반인(19.8%, 35건), 간호사(15.1%, 26건), 그리고 간호학생(9.9%, 1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연구대상의 발달단계 또는 연령분포를 보면 성인이 가장 많아 전체의 70.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노인으로 18.6%를 차지하였다. 대상의 거주지는 입원환자인 경우만을 임상(33.7%)으로 하였기 때문에 약 66.3%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선정기준 제시문항에서는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77.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9>.

연구대상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 지를 보았는데 구두동의가 전체의 61.6%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34.3%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면동이는 2건(1.2%)에 불과하였다. 한편 윤리적 고려가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실험연구(유사, 원시실험연구 포함)만을 대상으로 윤리적 고려여부를 본 결과 71.8%가 구두동의였고, 이에 대해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28.2%이었다<Table 9>.

<Table 9>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항목		빈도(%)	항목		빈도(%)
Participants	patients	77(44.8)	Residence	clinical setting	58(33.7)
	general population	35(19.8)		community	114(66.3)
	nurses	26(15.1)		not applicable	5(2.9)
	nursing students	17(9.9)	Subtotal		177
	significant others	6(3.5)	Defining inclusion criteria	yes	134(77.9)
	non-living things	5(2.9)		no	33(19.2)
	health care providers	3(1.7)		not applicable	5(2.9)
	nursing professors	3(1.7)		Subtotal	
	Subtotal		172		
Participants by developmental stages	children	2(1.0)	Ethical consideration	orally consent	106(61.6)
	adolescents	9(4.4)		written consent	2(1.2)
	adults	143(70.1)		no comment	59(34.3)
	elderly peoples	38(18.6)		not applicable	5(2.9)
	all ages	7(3.4)	Subtotal		172
	not applicable	5(2.5)			
	Subtotal		204		

8.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

총 50편의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독립변수)는 한가지 종류를 이용하는 경우가 주(79.6%)를 이루었고, 2-3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20.4%)도 있었다(Table 10).

종속변수는 생리적 지수(16건, 16.5%), 활력징후(10건, 10.3%), 신체기능/체력(8건, 8.2%), 지식/기술수준(7건, 7.2%), 그리고 활동(6건,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통증, 불안, 자기효능감, 신체상, 불편감, 건강통제위, 감염율 등 신체적·심리정서적·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변수가 사용

<Table 10> Nursing interventions in experimental studies

Nursing interventions	N(%)	Nursing interventions	N(%)
relaxation therapy	1(2.0)	psychosocial support	2(4.1)
exercise therapy	7(14.3)	warm/cold therapy	3(6.1)
drug therapy	3(6.1)	music therapy	3(6.1)
wound dressing	2(4.1)	audiovisual stimulation	1(2.0)
disinfection	1(2.0)	relaxation + exercise therapy	1(2.0)
position change	2(4.1)	relaxation therapy + giving information	1(2.0)
chest physiotherapy	1(2.0)	exercise therapy + giving information	4(8.2)
using devices	1(2.0)	giving information+audiovisual stimulation	3(6.1)
self-education	1(2.0)	exercise therapy+ giving information + psychosocial stimulation	1(2.0)
giving information	11(22.4)		

<Table 11> Dependent variables in experimental studies

Dependent variables	N(%)	Dependent variables	N(%)
vital signs	10(10.3)	belief, attitude	1(1.1)
pain	5(5.2)	depression	1(1.1)
sleeping	1(1.1)	stress	1(1.1)
physical activities	6(6.2)	discomfort	3(3.1)
physical function	8(8.2)	self-concept	1(1.1)
wound	2(2.1)	anxiety	5(5.2)
physiological index	16(16.5)	self-efficacy	5(5.2)
diet	2(2.1)	locus of control	1(1.1)
knowledge/skill	7(7.2)	family support	3(3.1)
self confidence	1(1.1)	uncertainty	1(1.1)
satisfaction	4(4.1)	performance rate	1(1.1)
achievement	1(1.1)	infection rate	3(3.1)
perceived health status	1(1.1)	hospital stay days	1(1.1)
body image	2(2.1)	other	1(1.1)
self-esteem	3(3.1)		

되고 있었다<Table 11>.

9.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주로 연구원에 의하며(38.3%), 필요에 따라 학생이나 연구현장에 있는 유경험자를 연

구보조원으로 활용(18.5%)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료수집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33.3%로 높게 나타났다고, 자료수집기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11.7% 있었다<Table 12>.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5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생리적 변수를 측정

<Table 12> Data collection

Defining duration of data collection			Data collector				Total
yes	no	Total	researcher	research aids	both	no comment	
143(88.3%)	19(11.7%)	162(100.0%)	62(38.3%)	30(18.5%)	16(9.9%)	54(33.3%)	162(100.0%)

<Table 13> Methods of data collection

measuring biophysiologic data	observation	questionnaire	interview			using old data	over 2 methods	Total
			individual	telephone	group			
44(22.9%)	10(5.2%)	99(51.6%)	26(13.5%)	3(1.6%)	0	13(5.2%)	36(23.7%)	231

<Table 14> Measurement

Levels of measurement	N(%)	Instruments	N(%)
nominal measurement	28(10.4)	using others'	148(55.2)
ordinal measurement	174(64.9)	self development	61(22.8)
interval measurement	38(14.3)	modifying others'	62(23.1)
ratio measurement	28(10.4)	Subtotal	268(100.0)
Subtotal	268(100.0)		
		Reliability testing of instruments	
		yes	155(57.8)
		no	113(42.2)
		Subtotal	268(100.0)

하는 것(22.9%), 개별면담(13.5%) 순이었다 (Table 13).

연구도구의 수준은 Likert scale을 포함한 서열 척도가 전체의 63.3%(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등간척도(14.8%, 38건)였다. 기존도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56.7%로 가장 많았는데 생리적 지수를 이 범주에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또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경우는 전체의 57.8%였으며(Table 14), 활용도구별 신뢰도 평가여부에 대한 통계적 검정결과 자체 개발도구의 경우 신뢰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01$). 이러한 경향은 자체 개발도구가 주로 생리적 지수를 측정하거나 단일한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념이나 인지를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자체로 개발한 도구에 대해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등을 검토하는 단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Table 15>는 연구도구의 종류를 제시한 것으로 자기효능감척도(12건), 일상생활활동척도(11건), 건강상태인지 및 지각척도(8건), 건강증진 행위척도(8건), 자아존중감척도(8건), 동통척도(8건) 순으로 나타났다.

10.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거의 대부분에서 SPSS나 SAS와 같은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고 있었다. 분석시에는 기술통계와 모수 및 비모수 통계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86.4%에서

<Table 15> Study instruments

Rank	Instrument	Frequency	Rank	Instrument	Frequency	Rank	Instrument	Frequency
1	self efficacy	12	10	body temperature	6	19	social support	4
2	activity of daily living	11	11	stress	6	20	pressure ulcer	4
3	perceived health status	8	12	self care	6	21	pulmonary function	4
4	promoting health behaviors	8	13	family support	5	22	nursing need	3
5	self esteem	8	14	satisfaction	5	23	locus of control	3
6	pain	8	15	anxiety	5	24	pulse rate	3
7	blood pressure	8	16	physical health	5	25	skin fold thickness	3
8	depression	7	17	awareness	5			
9	knowledge	7	18	fatigue	5			

<Table 16> Statistical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N(%)	Statistical analysis	N(%)
descriptive statistics	140(86.4)	others	
parametric statistics		chi-square test	38(23.5)
Z-test	0	regression	14(8.6)
T-test	64(39.5)	covariance analysis	5(3.1)
paired T-test	26(16.0)	factor analysis	4(2.5)
Pearson's correlation	44(27.2)	principal factor analysis	1(0.6)
analysis of variance(ANOVA)	68(42.0)	path analysis	1(0.6)
nonparametric statistics		content analysis	8(4.9)
Wilcoxon's rank sum test	11(6.8)	concept analysis	2(1.2)
Wilcoxon's signed rank test만-	5(3.1)	grounded theory analysis	5(3.1)
Correlation	3(1.9)	phenomenological analysis	5(3.1)

기술통계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비모수적 분석보다는 모수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분산분석(42.0%), T검정(39.5%), 그리고 카이제곱검정(23.5%)이었으며, 질적연구와 관련하여 요인분석이나 근거이론적 분석 등이 적은 빈도로 있었다(Table 16).

11. 제언여부

연구를 종결하면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거나 제언을 한 경우는 전체 연구의 86.3%로 나타났다.

V. 논 의

간호연구는 간호지식을 발굴하고 정련하고 확대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확산하고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학술지의 역할은 지대하다. 특히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보편타당성은 물론 해당분야의 특성 및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하여 기본간호학회 회원의 간호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창간호부터 2000년 7권 3호까지 총 171편의 논문을 보면 급격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양적인 증가가 있어왔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집게도 연구비 수혜 논문 특히 학회 연구비 수혜 논문 편수는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대한간호학회지가 연구비 수혜 논문의 급속한 증가와는 다소 대조를 보이고 있다(최 등, 2000). 단독연구보다는 공동연구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학이 다학문적 접근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타관련분야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논문편당 주요어는 2.6개이며, 주요개념은 가정간호, 건강증진, 자가간호, 자기효능감, 혈액투석 등으로 나타나 기본간호학과 다른 간호분야와 차별되는 개념이나 용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고 등(1992)이 1960년 이후부터 1991년 8월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2354편의 제목에

나타난 주요어를 분석하여 주요어수는 1편당 약 2개, 주로 사용된 개념은 간호사(5%), 불안(3%), 지식·태도·실천(2%), 스트레스·스트레스원(2%), 정신장애, 수술, 노인, 역할 등이라고 한 것과 비교할 때 주요어수는 비슷하며, 주요개념은 다소 달라 간호학에서 상당히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유형은 아직 대다수가 양적연구(86.5%)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학회지의 경우 1990년대 논문의 18.7% 질적 논문인 것과 비교할 때 질적 논문의 비율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이론수준은 요인관련형(40.4%)과 요인추구형(26.3%)이 많았는데, 오가실(1985)의 석·박사학위 논문 분석에서는 요소관련이론(11.5%), 상황관련이론(4.6%)였고, 김과 이(1995)이 1960년 이후부터 1991년 8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 논문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 연구유형은 요인추구형(58.0%), 요인관련형(29.1%)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본 연구결과는 비교적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Ryan(1983)에 따르면 한 분야의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연구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요인추구형, 요인관련형, 상황관련형, 그리고 상황생성형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에서는 다른 조사(홍 등, 1983 최 등, 2000)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빈도(63.8%)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순수실험연구를 포함한 실험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홍 등(1983)이 지적하였듯이 여전히 "Nursing Research" 등의 외국 학술지에 비해 조사연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는 다양한 진단을 가진 환자(44.8%), 지역사회 건강인(19.8%)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간호사(15.1%)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대한간호 및 간호학회지를 이(1984)의 연구결과와 최근의 최 등(2000)의 연구와 비교할 때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본추출방법을 보면 여전히 대다수가 임의추출

(96.7%)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표본수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12.8%에 불과해 결과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확률추출 및 표본수산정 기준 제시가 요구된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도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대부분이 구두동의(61.6%)에 의존하고 있으며, 34.3%에서는 이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윤리적 고려가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실험연구(유사, 원시실험연구 포함)만을 대상으로 윤리적 고려여부를 보았을 때도 71.8%가 구두동의였고, 이에 대해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28.2%이었다. 최 등(2000)의 연구에서 1990년대 전체 대한간호학회지논문의 78.6%는 윤리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실험연구에서는 서면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실험연구에서 사용한 중재(독립변수)는 정보제공(46.9%)이 가장 많았으며 직접적인 간호제공으로는 운동요법(26.5%)이 다음으로 많아 최근의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된 운동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서 등(1996)이 1970년부터 1995년까지 국내의 석·박사 학위 논문 및 비학위 논문중 간호중재를 적용한 실험연구만을 대상으로 간호중재의 종류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인지적중재, 운동중재, 사회적 중재, 그리고 감각적 중재순으로 행해짐을 보였고 특히 인지적 중재는 주로 정보제공과 교육이었으며 운동중재는 이완요법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중재별 종속 변수는 생리적 지수(16.5%), 활력징후(10.3%), 신체기능/체력(8.2%), 지식/기술 수준(7.2%), 그리고 활동(6.2%)순으로 나타나 서 등(1996)의 연구에서와는 순서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주로 측정되는 변수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에 의한 것이 약 51.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생리적 변수(22.9%)로 나타났다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주로 사용하는 연구도구는 기존의 타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것이며, 내용으로는 자기효능감, 일상생활활동, 건강상태 지각, 건강증진행위,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이 있었다.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신

뢰도 검증은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었으나(57.8%), 자체개발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또한 도구의 내적타당도를 검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연구자료의 분석은 컴퓨터 사용의 활성화로 대부분에서 통계패키지를 이용하며 다양한 통계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기술통계(86.4%)와 모수 및 비모수 추론통계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지만 비모수적 분석보다는 모수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분산분석(42.0%), T검정(39.5%), 그리고 카이제곱검정(23.5%)이었으며, 질적연구와 관련하여 요인분석이나 근거이론적 분석 등이 적은 빈도로 있었다. 강과 이(1980)의 1970년에서 1979년의 10년간 대한간호와 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318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분석 방법으로는 단순히 백분율로 처리한 것도 57.0%였고, 추론통계 방법으로 카이제곱검정(16.7%), T-검정(12.1%), 분산분석(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에 본 연구에서 분산분석의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와 관련된 제언을 제시한 논문은 86.3%로 최 등(2000)의 82.9%에 비해 높았다. 홍 등(1983)은 대한간호학회지와 미국의 Nursing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을 비교하면서 대한간호학회지의 통계방법이 제한적이고 제언이 없는 논문이 많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계방법의 다양성, 제언의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본간호학회지는 기본간호학의 지식체 개발을 위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는가에 대해 그 전문성과 독특성은 아직 미진하지만 지난 7년간 길지 않은 기간동안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향상되어 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4년 기본간호학회지 창간호가 발행된 이후로 기본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분석하여 기본간호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대상논문은 창간호부터 2000년 7권 3호까지 발행된 총 171편이며,

객관적인 분석틀을 이용하여 총 26문항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서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은 일반논문이 94.2%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연구비지원 논문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2. 연구논문 당 연구자수는 평균 2.2명이며 단독연구논문은 전체 연구의 34.5%를 차지하였고 점차적으로 단독연구보다는 공동연구로 나아가고 있었다.
3. 주요어 총수는 331개로 논문 1편 당 평균 2.6개이며 가장 빈번히 사용된 주요어는 가정간호(10건), 건강증진(8건), 자가간호(7건), 자기효능감(7건), 혈액투석(6건) 등으로 나타나 간호학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기본간호학의 차별화된 개념이나 용어라고는 보기 힘들었다
4. 연구의 유형은 약 87%가 양적연구이며, 이론수준은 조사연구가 중심이 된 요인관련형이 약 40%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5. 연구설계유형을 보면 비실험연구가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였으며 1999년 이후는 이전에 비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조사연구의 두드러진 감소를 보였다.
6. 논문당 표본 수는 평균 약 147명으로 비교적 대표본이었으나 표본수 산정기준없이 임의표본추출을 하여 편의추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략적인 표본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연구대상자는 다양한 진단명을 가진 환자(44.8%)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성인 또는 노인층이 약 90%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주로 구두동의(61.6%)였지만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34.3%로 높게 나타났다.
8.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독립변수)의 종류는 정보제공(46.9%), 운동요법(26.5%)가 가장 많았고, 종속변수는 생리적 지수(16건, 16.5%), 활력징후(10건, 10.3%), 신체기능/체력(8건, 8.2%), 지식/기술수준(7건, 7.2%), 그리고 활동(6건,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9. 자료수집은 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연구도구로 이용하는 도구는 주로 기존에 작성된 도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5.2%), 57.8%에서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기술하였다. 주로 이용된 연구도구는 자기효능감척도(12건), 일상생활활동척도(11건), 건강상태인지 및 지각척도(8건), 건강증진행위척도(8건), 자아존중감척도(8건), 동통척도(8건) 순으로 나타났다.

10. 자료분석은 비모수적 분석보다는 모수적 방법을 활용하며 분산분석(42.0%), T검정(39.5%), 그리고 카이제곱검정(23.5%)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본간호학회지는 꾸준히 양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미진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학회지의 논문과 구별되는 기본간호학의 독특한 부분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아직 기본간호학회지의 발간 역사가 짧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질적으로 향상되고 기본간호학의 특성이 잘 반영된 논문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논문분석은 객관적인 틀에 의해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논문자체의 질적 분석은 이뤄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논문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ference

- 강윤희, 이숙자 (1980). 전문지를 통해 본 간호연구의 실제. *대한간호*, 19(3), 54-64.
- 고옥자, 김상혜, 김희결, 이금재, 이영숙 (1994). 학위논문의 주요어 분석(간호학 및 간호학관련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1960-1991. 8). *대한간호학회지*, 24(1), 58-69.
- 기본간호학회 회칙 (1999)
- 김명자, 이명선, 이미형, 이화인 (1994). 우리나라 간호계 석·박사 학위논문분석-실험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4(1).
- 김문실, 강운숙, 강익화, 문희자, 박성애, 변창자, 이꽃메, 한성숙 (1998). *간호의 역사*. 대한간호협회.
- 김희결, 이영숙 (1995). 우리나라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학위논문 분석. *대한간호*, 34(5),

68-80.

- 서문자, 김금순, 김인자, 손행미, 이은남, 김희진, 김문숙 (1996). 국내 성인 간호중재 연구현황과 내용분석. *간호학논문집*, 10(2), 123-147.
- 이영은 (1984). 한국에서의 간호연구 경향에 관한 조사연구. *복음간호전문대학논문집*, 2, 83-88.
- 전시자, 홍근표, 양원영, 이정자, 이봉숙, 김종일, 허혜경, 임지영, 안주영 (1994).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의 분석. *대한간호*, 33(2).
- 전점이 (2000). 운동중재에 관한 국내 간호학 논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2), 319-330.
- 최경숙, 송미순, 황애란, 김경희, 정명실, 신성래, 김남초 (2000). 대한간호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국내 간호연구 동향. *대한간호학회지*, 30(5), 1207-1217.
- 홍근표, 김매자, 김명자, 이향련, 이정자, 박오장, 강현숙, 임난영, 김정인, 최남희, 이선옥, 박지원, 조동숙 (1983).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 논문분석. *대한간호*, 22(3), 115-130.
- Brown J. S., Tanner C. A., & Patrick K. P (1984). Nursing's search for scientific knowledge. *Nursing Research*, 33, 26-32.
- Hinshaw A. S. (1989). *Nursing Science : The challenge to develop knowledge*. Williams and Willikins Publishing Co., 162-171.
- Ryan, N. (1983). The epidemiological method of building causal infer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73-81.

Abstract

The Research Trends in Fundamental Nursing

- Based on the Analysis o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

Jeong, Ihn-Sook¹⁾ · Kang, Kyu-Sook²⁾
 Kim, Kyung-Hee³⁾ · Kim, Keum-Soon⁴⁾
 Kim, Won-Ock⁵⁾ · Byun, Young-Soon⁶⁾
 Sohng, Kyeong-Yae⁷⁾ · Son, Yeong-Hee⁸⁾
 Yang, Sun-Hee⁹⁾ · Jo, Hyun-Sook¹⁰⁾

Purpose: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and content of all the research (171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from 1994, when it began to 2000 using an objective tool developed by the researches, and to identify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research in Fundamentals of Nursing.

Method: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from 1994 were reviewed.

Result: Most of research (94.2%) was non-degree based and funded research was very limited. The average number of researchers per research study was 2.2 and

* This study was sponsored by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 1)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2)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3) Department of Nursing, Jung Ang University
- 4)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5) Kyung Hee College of Nursing
- 6)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7)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 8) National Medical Center College of Nursing
- 9)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 10)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Gil College

collaborative research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 total number of key words was 331 and the average was 2.6 per research. The major key words were not different from other nursing departments and included home care nursing (10 times), health promotion (8 times), self-care (7 times), self-efficacy (7 times), and hemodialysis (6 times). Eighty seven percent of the research was quantitative research, and there were very few qualitative studies. Considering theory level, it was found that 40% were factor related research. For study design, non-experimental studies were most frequent (66%), and the rate, especially of surveys, has remarkably decreased. Selection of subjects by convenience sampling, was most frequent and there were very few studies that provided the rationale for the calculation of sample size. The major subjects of study were patients (44.8%) with various diagnoses. The subjects usually gave oral consent to take part in that study. Giving information (46.9%) and exercise (26.5%) were common nursing interventions,

and physiological indices (16.5%), vital signs (10.3%), physical functioning (8.2%), level of knowledge/skill (7.2%) and level of activity (6.2%) were frequently measured as outcome. Variables questionnaires were the major approach used to collect data, and 57.8% of the research provided the Cronbach alpha to guarantee internal consistency of study instruments. Data were analyzed with computerized statistical packages using, ANOVA (42.0%), T test(39.5%), and chi-square test. For the last seven years, nursing research in Fundamentals of Nursing has gradually improved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Conclusion: It was difficult to find any uniqueness or difference compared to other departments of nursing. In fact, because the history of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is rather short, we can expect that there will be further improvement in quality and content in the future.

Key words : Fundamentals of Nursing,
Research Analysis